KIA, 롯데에 5-4 진땀승…2연패 끊어

9위에서 7위로…최하위 추락 면해

변우혁, 2타점 적시타…5타수 2안타 3타점 활약

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1회초 2사 2,3루 KIA 변우혁이 2타점 적시타를 날린 뒤 환호하고 있다.

사직구장에서는 KIA 타이거즈가 롯데 자이언츠를 5-4로 눌렀다.

2연패를 끊은 KIA는 시즌 성적이 5승 8패가 됐다. 시즌 초반 고전하며 '디펜딩 챔피언'의 체면을 구기고 있는 KIA는 이날 승리하면서 최하위 추락을 면했고, 9위에서 공동 7위로 올라섰다.

롯데는 5승 1무 8패를 기록해 7위에 머물렀다.

먼저 앞서간 것은 롯데였다.

2회말 고승민의 안타와 전민재의 내야안타, 상대 투수 폭투를 엮어 선취점을 낸 롯데는 선발 김진욱의 호투 속에 리드를 지켰다. 5회말에는 황성빈의 안타와 상대 실책으로 만든 1사 3루에서 빅터 레이예스가 우중간 적시 2루타를 때려 1점을 추가했다.

김진욱 공략에 애를 먹던 KIA는 6회 힘을 냈다.

6회초 박찬호의 볼넷과 패트릭 위즈덤의 좌전 안타, 최형우의 내야안타로 2사 만루를 만들었다.

후속타자 이우성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 1점을 따라붙었고, 변우혁이 2타점 중전 적시타를 작렬해 3-2로 승부를 뒤집었다.

롯데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7회말 황성빈의 볼넷과 도루로 만든 2사 2루에서 레이예스가 우전 적시타를 때려 동점 점수를 뽑았다.

KIA는 곧장 리드를 되찾았다. 8회말 최형우의 2루타와 변우혁의 좌전 적시타를 묶어 1점을 올렸고, 최원준의 볼넷으로 이어간 1사 1, 2루에서 김태군이 좌전 적시타를 터뜨려 5-3으로 앞섰다.

롯데는 8회말 전민재의 좌전 적시 2루타로 1점을 만회했으나 더 이상 점수를 내지 못하고 KIA에 무릎을 꿇었다.

5-4로 앞선 9회말 마운드에 오른 KIA 마무리 투수 정해영은 1이닝을 삼자범퇴로 마치고 시즌 세 번째 세이브(1패)를 따냈다.

KIA 선발 김도현은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으나 5⅓이닝 9피안타 3탈삼진 2실점(1자책점)으로 잘 던졌다.

7회말 등판한 KIA 조상우는 동점 점수를 내줬지만 타선 덕에 1이닝 1실점하고 쏙스러운 승리를 챙겼다.

KIA 타선에서는 변우혁이 5타수 2안타 3타점으로 활약했다. /뉴시스

김길리, 쇼트트랙 1000m 1위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25/26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여자부 1000m 결승에서 김길리(흰, 성남시청)가 1위를 차지했다.

美에 이정후 팬클럽 탄생…불꽃 가발 쓴 '후리건스'

샌프란시스코 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이정후의 팬클럽인 후리건스. /NBC 스포츠 중계 캡처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는 이정후의 팬클럽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 중계 화면에 불꽃 가발을 쓰고 응원전을 펼치는 팬들이 포착됐다.

가슴에 'HOO LEE GANS(후리건스)'라고 새겨진 티셔츠를 나란히 입은 이들은 이정후가 슬라이딩 캐치를 선보이자 율동을 선보이며 단체 응원 구호를 외쳤다.

샌프란시스코 현지 팬들이 모여 만든 이정후의 팬클럽이다. 이정후의 이름과 축구 열성팬을 의미하는 '훌리건'을 합성해 팬클럽 이름을 '후리건스'라고 지었다.

이날 경기에는 51명이 응원전을 펼쳤다. 이정후의 등번호 51번에 맞춰 인원을 구성했다.

'후리건스'의 응원은 현지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이정후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중계 카메라가 이들의 모습을 잡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도 이들을 궁금해하는 글이 쏟아졌다.

팬클럽 공동 조직자인 카일 스밀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지난해 경기장을 방문해 이정후를 응원하려고 했지만, 이정후가 부상으로 시즌을 5월에 마감하면서 이제 방문했다"고 밝혔다.

스밀리는 "멋진 가발과 변장을 좋아하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불꽃 가발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정후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지난 5~7일 오라클 파크에서 펼쳐진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홈 경기에서 외야 142번 구역을 '이정후 존'으로 정하고, 해당 구역 입장권을 산 관중에게 '정후 크루' 티셔츠를 증정했다.

女농구 통산 최다 득점 김정은 하나은행에서 1년 더 뛴다

여자프로농구 통산 최다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는 간판 스타 김정은이 부천 하나은행에서 1년 더 선수 생활을 한다.

하나은행은 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자유계약 선수(FA) 김정은과 계약기간 1년, 연봉 총액 2억원에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00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하나은행 전신인 신세계 지명을 받아 프로 무대에 발을 들인 김정은은 2016~2017시즌 뒤 FA가 돼 아산 우리은행으로 떠났다가 2023~2024시즌을 앞두고 친정팀에 돌아왔다.

꾸준히 리그 최정상급 포워드로 활약한 김정은은 지난해 12월2일 용인 삼성생명전에서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통산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선민 하나은행 수석코치가 작성한 종전 기록인 8140점을 넘어섰다.

지난 시즌까지 통산 8333점을 기록한 김정은은 FA 계약까지 마무리했다.

광주체육중·고 '전국조정대회' 메달 9개

남·여중등부 더블스컬 · 여고부 싱글스컬 금메달

광주체중 남중부 더블스컬 (왼쪽부터)박예성, 구시온 금메달.

광주체육중 · 고등학교 조정부가 지난 5~7일 경남 김해시 대동생태체육공원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67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체육중 · 고등학교는 여자중등부 더블스컬 우승과 남자중등부 더블스컬 우승, 싱글스컬에서 준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여중부 더블스컬 1000m에 출전한 이수아 · 권지영(이상 3학년) 학생은 강풍의 악조건에서 경남 진주 문산중을 3초 차이로 따돌리며 3분48초30으로 1000m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남중부 더블스컬 1000m에서는 박예성 · 구시온(이상 2학년) 학생이 3분37초09의 기록으로 부산의 엄궁중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고등부 경량급 싱글스컬 2000m에 출전한 김지선(3학년) 학생은 충주여고 장서연 학생보다 28초 앞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중부 싱글스컬과 여고부 싱글스컬에서는 김준영(3학년) 학생과 노효림(1학년) 학생이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남고등부 싱글스컬에서는 김준호(2학년) 학생이 은메달을 땄다.

여고부 더블스컬에 출전한 노효림 · 천지민(이상 1학년) 학생과 경량급 싱글스컬 강준우(3학년) 학생은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체육중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광주체육고는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조정 명문 학교로서 위상을 높였다.

/조선주 기자